

제 2 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공모 당선작품소개

이 글은 당 협회가 86. 7. 5 우유공동홍보의 일환으로 제 2 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응모자 3,264편의 많은 작품이 접수되어 새싹회 아동문학가 윤석중씨를 통해 엄격한 심사결과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佳作 7편, 장려상 10편, 입선작 20편 등 총 40편으로 이번호에는佳作 7편중 진여 4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註).

우리집은 우유 가족

서울 신상계 국민학교

5~4반 김진아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다.
나는 아직도 포근한 이불 속에서 꿈틀거리며 잠을 자고 있을 때,
“딩동, 딩동”.
벨이 울렸다.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보았다.
두 병의 우유가 놓여 있었다. 방금 온 우유라서 몹시차가왔다.
또, 우유병 곁에는 물방울이 생겨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때, 자연 시간에 했던 실험이 생각났다.
유리 컵에 아주 찬 물을 넣으면 잠시후 유리컵 곁이 물방울이 생기는 신기함.
이런 자연 시간의 실험을 생각하면서 우유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는 나는 오늘도 우유를 상쾌하게 마시고 학교에 간다는 생각을 하니 무척 흐뭇했다.
아마, 우리 식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 식구들도 우유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이다.
물론, 나도 누구 못지 않게 우유를 아주 아주, 너무 너무, 무척 좋아한다.

나는 우유를 마루에 놓고,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우리 식구들에게 빨리와서 우유를 먹으라고 소리쳤다.
“아버지, 어머니! 우유가 왔어요. 빨리 나와 보세요.”
“언니, 빨리 나와서 우유 먹어요.”
“재성아, 빨리 일어나서 맛있는 우유 먹어.”
이렇게 우유 소식을 온 집안 식구들에게 알리자, 우리 식구들이 ‘우유’라는 말에 우유가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다.
어린 내 동생은 우유를 제일 많이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욕심이 가득찬 내 동생에게 알밤을 주려다가 꼭 참았다.
어머니께서는 찬장 안에서 우리 가족수에 맞게 컵을 다섯 개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 다섯 개의 컵을 나란히 놓고 나에게,
“진아야, 네가 이 두 병의 우유를 다섯 개의 컵에 똑같이 나누어 한 번 따라 부어 보렴.”
하는 어머니의 말씀에 나는,
“네. 한번 해 보겠어요.”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였다.

나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문जे 없다는 듯이 우유를 조심스럽게 다섯 개의 컵에 똑같이 나누어 부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어느, 컵에는 우유가 많이 있고, 어느컵에는 우유가 적게 있었다.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것이다.

어머니께서는 능숙한 솜씨로 한 번에 다섯 개의 컵에 우유를 똑같이 따라 부으셨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똑같이 따라 부으신 컵에 담긴 우유를 눈을 더 크게 뜨고 보았다.

정말로 우리 어머니는 '우유 엄마'라고 할 만큼 우유 따르시는데 솜씨가 좋으시다.

알록달록 꽃이 그려진 투명한 유리컵에 담긴 새하얀 우유가 더욱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그 때, 마루 밑에서 우리 집 강아지 해피가 '멍, 멍'하고 짓어대는 소리에 뒤를 돌아다보았다.

우리 집 강아지 해피도 자기도 우유를 먹겠다는 듯이 나와 우유를 번갈아 보며 계속 짚어댔다.

할 수 없이 나의 우유를 해피와 나누어 먹었다. 나는 해피의 그릇에 내 우유를 반 줌 부어 주었다. 해피는 꼬리를 흔들며 우유를 돼지같이 아주 잘 먹었다.

우리 집 강아지까지 우유를 좋아하니 우리 집이야말로 우유 가족이라 하니할 수 없다.

우유 대장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국교

4-1 이 환규

우리집은 시내와 동떨어진 과수원에 있습니다. 학교 뒷길 자갈길을 따라 한참 걸어 올라가면 언뜻 보아 동산에 창고 같은 작으마한 관리사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 형, 그리고 나, 네 식구가 삽니다. 외따로 떨어진 집이라 무섭고 심심하지 않으냐고 친구들이 말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아빠하고 형은 언제나 제 친구가 되어 줍니다.

나는 우리집에서 대장입니다. 무슨 대장이냐구요? 잠꾸러기 대장, 욕심꾸러기 대장, 그리고 우유 대장입니다. 저의 얼굴

에는 항상 세 개의 별이 번쩍 번쩍 빛나는 귀염둥이 대장이랍니다. 언젠가 엄마께서 우유를 받아주시려고 우유 배달 아저씨께 부탁드렸더니 산골짜기라 배달이 어렵다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집은 분유를 많이 먹는 편입니다. 샤베트도, 아이스크림도 내가 좋아하는 코코아, 마일로도 우유를 듬뿍 넣어서 만듭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저의 학교가 우유 급식 학교로 선정되어 줄곧 학교에서 우유를 받아 마십니다. 요즘은 엄마께 줄라 우유를 2개씩 받습니다. 그래도 더 마시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아빠 우유도 몰래 마셔버립니다.

“인제 우유를 4개 받아야 되겠구나.”하시는
엄마 말씀에 나는 마음 속으로 박수를 보냈읍
니다. 역시 우리 엄마는 내 마음을 잘 아셔.
나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하나 마시고 조금
있으면 또 마시고 싶어집니다. 땀을 뻘뻘 흘리
며 동산을 올라 집으로 향하노라면 벌써 우유
생각이 간절해 집니다.

‘아빠 우유를 마셔 버릴까?’
마음속으로 자꾸 충돌합니다. 아냐, 이것은 아
빠하고 엄마가 마셔야지, 내 마음은 서로 다툼
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대문 앞에 서게 됩
니다.

반갑게 맞아 주시는 아빠!
역시 아빠를 드려야지. 그러나 내 마음을 뻘뻘
들여다 보신듯이 아빠께서는 반만 마시고 저
를 줍니다. 나는 신이 나서 꿀꺽꿀꺽 단숨에
마셔 버립니다.

“아! 시원해”

입을 째억 다시면 고소한 뒷맛이 또 우유를
마시고 싶어집니다.

에라! 나도 젓소나 한 마리 키울까? 매일
우유나 실컷 마시게...

나는 3학년 때 읽은 알프스 소녀에나오는
페에터가 생각났읍니다. 염소떼를 몰고, 알프
스산을 올라 풀을 먹이는 모습을 상상해 봤읍
니다. 염소에게 좋은 풀을 먹여서 클라라와 하
이디에게 늘 신선한 우유를 짜 주는 가목한
마음과 알프스의 신선한 공기가 끝내는 클라
라의 병을 낫게 해 줍니다.

아! 우리 아빠도 신선한 우유를 매일 마셔서
빨리 병이 낫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아
빠의 얼굴을 쳐다보았읍니다. ‘아빠 하루속히
건강하세요’하는 마음과 함께 나는 오늘도 아
빠와 함께 재미 있게 공부하고 놀 것읍니다.
몸이 편찮으신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나의
얼굴에 자랑스런 별 셋이 빛나게 말읍니다.

우유는 어려서부터

충남 온양시 온양온천국교

6-4 김 소 현

“땡땡.....”

둘째 시간이 끝났다. 앞에 계시던 선생님께
서는 우리들을 보시고,

“어제는 우유가 상해서 못 먹었으니, 오늘
은 두 개씩 가져 가도록 해요.” 하고 말씀하셨
다. 나는 앞으로 나가 우유를 두 봉지 집어 들
고 내 자리에 왔다. 몹시 더웠기 때문인지 나
는 단숨에 우유를 비웠다.

‘이것도 먹을까?’

한참 망설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선생이가,

“이건 우리 엄마 갖다 드려야지.”

하면서 우유 한 봉지를 가방 속에 넣었다.

‘그래 나도 엄마 갖다 드려야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유를 책상 깊숙히
집어 넣었다.

학교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책가방에서 우유를 꺼내어 냉장고에
넣었다.

‘엄마가 와서 시원한 우유를 마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니 괜히 가슴이 울렁거렸다.
“똑딱똑딱.”

하는 시계 소리에 나는 마음이 자꾸 조금해졌다. 일분이 마치 한 시간이나 되는 것 같이 느껴졌다.

기다리다 못해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문제집을 하였다. 그때,
“획.”

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다. 바로 어머니였다.

나는 벌떡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꺼내 가지고 어머니 앞으로 갔다.

“엄마 이거…….”

어머니께서는 우유를 보시고는

“너나 먹어.”

하셨다.

‘치. 내가 생각해서 갖다 주니깐…….’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안 먹어 버릇해서 우유를 못 먹어.”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조금은 화가 풀렸다.

“소현이 너도 어렸을 때부터 우유 같은 영양이 많은 식품을 먹어야 해.

엄마는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안 먹었기 때문에, 자금도 이렇게 병원에 다니며 고생을 하고 있단다. 그리고 버릇은 어려서부터 길들여야 돼.”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그럴법 했다.

‘그래 나도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많이 먹어서, 나중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느 새 우유 봉지를 뜯고, 신선한 우유의 맛을 보고 있었다.

우리는 우유 가족

충남 온양시 온양온천국교

5~3 강오현

“엄마, 어디가세요?”

이상한 복장을 하신 어머니께 내가 물었다.

“오늘은 일요일이니 너희들이 집쯤 지켜라.

나 잠깐 어디쯤 다녀 올테니,

이것쯤 먹고 있어라.”

하시며 마루에 우유를 몇개 내려 놓으셨다.

나는

“엄마, 어디 다녀 오세요?”

이렇게 다시 묻자 어머니께서

“알 것 없다.”

하시며 대문 밖으로 나가셨다. 나는 어머니의 행동에 의심이 갔다.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엄마께서 어디를 가시지? 그리고 이상한 옷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생겼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저녁 때가 되었다. 어머니께서 돌아오셨다. 어머니께서

“애들아. 이거 먹어라.”

하시며 우유를 내 놓으셨다. 나는 어머니의

행동에 자꾸자꾸 의심이 생겼다. 하지만 동생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우유를 먹었다.

이 일이 있는지 며칠이 되었다.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나와 미영이, 나숙이 영아가 같이 가고 있었다. 그런데 미영이가

“오현이 너의 엄마 우유 배달 하더라.”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닐텐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미영이가

“어제도 우리 집 우유 배달 하던데…….”

이렇게 말하고는 또,

‘너의 집 그렇게 가난하니?’

놀리는 투로 말하고 미영이네 집으로 모두 들어가 버렸다. 미영이가 옆에 있으면 때려 주고 싶었다. 나는 화난 채로 집에 들어왔다.

숙제도 하고 싶지 않았고 밥도 먹기 싫고, 놀고 싶지도 않았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에 내가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어…’

나는 어머니를 원망했다. 저녁때가 되었다. 어머니께서 돌아오셨다.

나는 어머니께

“엄마 우유 배달하지 마.”

이렇게 말씀드리자. 어머니께서

“엄마가 우유 배달 하는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물으셨다. 나는

“아이들이 엄마가 우유 배달 한다고 놀리잖아.”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엄마가 우유 배달 하는 게 창피하니?”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예.”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네 생각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내 힘으로 너희들을 남들처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좋겠니? 나도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들을 외식도 시켜 주면 좋겠지만 내 힘으로 그것이 될 수 있겠니?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겠지만 나도 너희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많단다. 우유 배달을 하고 남은 우유는 너희들을 주지 않니? 그게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잠시 후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 석원이가

“엄마, 내가 춤출게 우유 줘.”

이렇게 말하고는 춤을 추었다. 어머니께서는 춤을 추는 석원이를 보시고는 웃으셨다. 나도 춤추는 석원이를 보고 웃었다.

어머니께서 가방에서 우유를 꺼내어 석원이에게 주셨다. 석원이는 우유를 먹었다.

잠시후 아버지, 언니 모두가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 가족은 우유를 꺼내어 먹었다. 우유를 한참 먹고 있을 때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이 집은 우유 가족이네.”

하시며 우유를 하나 잡수셨다.

이웃집 아주머니 말씀대로 우리는 우유 가족 같았다.

우리를 튼튼하게 키우려고 애 쓰시는 어머니가 고맙다.

어머니 뜻대로 우리는 우유 가족이 되어 언제나 건강하고 명랑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민족의 영광, 거래의 도약

저능력 젖소 도태하라 낙농업 개선하라

본문은 정부당국 및 축협중앙회, 한국유가공업회, 낙농육우협회 등이 전국 낙농가에게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저능력우 도태 및 송아지에게 어미젖 먹이기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있는 바 그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편집자註)

우리나라의 낙농현황은 ?

□ 우유 수급사정

- 생산증가율이 소비증가율 상회 :

생산 : ('81~84. 6) 17% → (84. 7~'86) 18%

소비 : ('81~84. 6) 21% → ('84. 7~'86) 15%

□ 정부와 축협의 소비확대 대책 추진

('85년 이후)

- 시유 포장용량 증량 : 180ml → 200ml

- 유제품 특별소비세 면제 :

- 분유수출 및 대용유 원료공급 :

- 젖소 및 유제품 수입중단 :

- 학교등 단체급식 확대 :

저능력 젖소는 왜 도태해 주어야 하나?

- 낙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 소비보다 생산이 많아 우유가 남아돌아 팔리지 않게되면 우유공장이 어려워져 우유값을 제때에 받기 어려워지고 불황이 길어지면 낙농업 발전을 저해한다.

-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이익이 된다.

- 젖소 배합사료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곡물을 주원료로 만들므로 능력이 낮아 소득도 없는 소에게 귀중한 외화를 먹이는 결과가 된다.

- 목장경영의 수지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저능력 젖소를 많이 사육하고 있을수록 고능력 젖소에서 벌어들인 이익까지 삼켜버린다.

- 낙농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우유가 남아돌아 수급이 불안정하게 되면 낙농가가 맘출린 보람없이 안정된 경영유지가 어려워진다.

저능력 젖소의 도태요령

- 연간 산유량 4,500kg 이하의 사육비가 수익보다 많아 손해보니 우선 선발 도태한다.

- 3 회이상 수정시켜도 수태가 안되어 번식율이 떨어지는 소는 경제성이 없으니 도태한다.

- 유방염이 자주 발생되어 치료가 잘 안되는 소는 완치가 어려우니 도태한다.

- 다음과 같은 소는 미련없이 도태한다.

- 걸음걸이가 불안하거나 사지가 약한 소
- 부제병 또는 기타 질병에 걸려 장기간 치료가 되지 않는 소

- 식욕이 저하되어 체중이 떨어지고 있는 쇠약우

- 소화기 질병에 자주 걸리는 소나 노령우

- 젖소군 중에서 가장 능력이 떨어지는 소

낙농 경영 개선

- 개체별 능력을 기록관리하여 능력이 낮은 소는 도태하고 좋은 소만 선택하여 기른다.

- 목장 규모는 자가노동 능력 범위로 조정한다.

- 초지나 사료작물 등을 많이 생산하여 자급사료위주로 사육한다.

- 사육시설과 환경을 깨끗이 하여 위생적인 우유가 생산되도록 한다.

- 우유가 남아도는 과잉생산기에는 송아지에게 어미젖을 먹여 기르도록 한다.